



남원농협 등 도농사랑 업무 협약식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역 남원사무소(소장 김혜경)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남원농협에서 농촌협력 제고를 위한 도농사랑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도농사랑 운동이란 농협에서 공공기관의 공익사업을 농업·농촌 분야로 유도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농촌 활력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 실시하는 운동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남원농협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역 남원사무소는 관할 농촌에 부족한 일손 지원, 농산물 판매 및 복지사업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남원농협 박기열 조합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외활동으로 농촌이 지속 가능하도록 활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서 이동가구 주거환경개선 위한 기부 이어져

완주군에 위치한 기업과 단체가 취약계층 아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완주군은 18일 완주군에 위치한 기업 (주)에이앤씨테크(대표 이재훈), (주)비디텍(대표 황각하)에서 완주군 취약계층 아동 가구를 위해 써달라며 각 100만원씩 국가품질명장협화에서는 50만원을 완주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후원금은 완주군 드림스타트팀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하는 '개·소·곰(깨끗하고 소중한 보금자리) 아동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시 도동동, 고구마 취약계층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서덕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락동 소재 휴경지에서 직접 키운 고구마를 수확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했다.

고구마 수확에는 남원 로타리클럽, 봉사량, 도동동 봉정협 의회 등 30여명이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으며, 이날 수확한 고구마는 100박스(2백만원 상당) 정도로 추석을 맞아 관내 경로당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덕교 위원장은 "병철에 외롭게 지내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달콤한 고구마 드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추석명절 앞두고 나눔의 물결 이어져

진안군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9일 (주)솔라파크에너지(대표 윤근성), DDM(대표 강규남), 부부막(대표 이인재)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주)솔라파크에너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물세트를 후원하면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며 나눔의 뜻을 밝혔다.

또한 강규남 대표는 진안고인시장에서 종합생활용품점을 이인재 대표는 안전면에서 부부막을 운영하고 있다.

두 대표는 "2023년 추석에도 이웃들과 한가위 풍요와 온정을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8남매 자녀들의 어머니 송봉순씨의 일기 출판기념회 성료

원불교 마량교당에서 신타원 송봉순(91)씨의 일기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출판기념회'가 최근 소재호 전북예총회장 송금옥 마량면장, 오길현 마량면도인회장을 비롯한 주민, 마량교당 용타원 서경은 교무와 교도 진타원 서진화 전 마량교당 교무, 8남매 가족 및 친지 등 150여명이 참석해 출판기념회를 성황리 마쳤다.

송봉순씨의 출판기념회 식순은 2016년 11월 9일 EBS에서 방영된 봉순 합매 학교가다를 시청, 일기책 봉고식 내빈소개, 송봉순씨의 약력소개, 송봉순씨의 인사 큰아들인 조준열 전 마량면장의 인사, 소재호 전북예총회장의 축사, 용타원 서경은 마량교당 교무의 축사, 서준석씨의 일기책 편집 후기 인사, 박현정 시인의 송봉순씨의 일기 낭독, 꽃다발전달, 8남매 자녀들의 내 이가 어머서 노래 합창 및 가족소개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7월 16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조동관(93)씨의 병원 입원으로 인해 행사를 취소했으나 조동관씨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조씨의 참석 하에 출판기념회를 열었으며 조동관씨의 건강이 완전 회복되도록 건강 격려 박수로 환영했다.

송봉순씨의 인사말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죽는 날까지 열심히 배우는 날마다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로 인사를 마쳤다.

큰아들인 조준열(전 마량면장, 진안군의원)씨는 "어



머남께서 5남3녀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고 마량주민센터 한글반에서 한글을 배워 20여년 간 72권의 일기장에 어머니의 애환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초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2022년 2월 17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서를 받으셨으며 2023년 5월 4일 진안군수로부터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했다.

송씨의 끈기와 열정 성실함에 대해 자녀들이 배워야 하며 일기책을 만들어주신 진안신문사 김순옥 대표님, 서준석씨와 마량면주민자치학교 한글반 선생님과 도와 주신 모든분들에게 감사드리다고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 출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 협의회가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1기 출범식을 가졌다.

19일 열린 출범식에는 이학수 시장, 고경운 시의회 의장, 김동환 신임협의회장과 김태홍 전 협의회장 등 50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는 지역대표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 48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이들 위원은 오는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제21기 김동환 신임 협의회장은 "무한한 책임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한민족의 숙명적 사명을 실현시켜 국민적 통일외지를 결집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학수 시장은 축사를 통해 "한법기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남북 교류사업 활성화와 지역 내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낼 수 있도록 힘이 돼 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21기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공식 출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가 지난 18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평통은 한법 제92조에 따라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대통령의 통일 자문에 적극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21기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회장으로는 박정우(임실문화원장 관한대행) 씨가 임명되고, 부회장으로는 나승득·최용래, 간사에는 임은두 씨가 각각 선임됐으며, 이들을 포함한 총 38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됐다.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제21기 민주평통 임실군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대행 기관장인 심 민 임실군수가 제21기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다.

박정우 회장은 "20기에 이어 어려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민주평통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교두보가 되어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평화를 위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이 변역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민주평통 순창군협의회 제21기 출범식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창군협의회(회장 서애숙)는 지난 18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자문위원과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기 출범식 및 3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대신해 대행 기관장인 최영일 순창군수가 제21기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21기 자문위원 35명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서애숙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여론수렴과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 등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게 된다.

서애숙 협의회장은 "평화통일 정책수립과 국민적 통일의지를 결집해 자문위원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제21기 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며, 지역 주민들의 역할을 결집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평화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순창 실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이영환 기자

전북대 캠퍼스텟발췌터, 농생대 2호관서 홍보·판매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에서 인큐베이팅 모델로 육성한 ONE-YEAH(원예)협동조합이 20일 전북대 부속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백향과와 사인머스켓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갖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부속농장 캠퍼스 텟밭췌터와 농생대 2호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재배한 백향과와 사인머스켓, 홍주 씨들리스 등 2가지 종류의 포도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오는 27일 2차로 수확한 사인머스켓 및 홍주 씨들리스 포도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판매행사에서는 ONE-YEAH(원예)협동조합 작목반인 '백반집'과 '도도씨유'가 나서 전북대 부속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백향과와 두 종류의 포도(사인머스켓, 홍주 씨들리스)를 선보인다. /정은성 기자



ONE-YEAH협동조합 채소 작목반인 백반집은 원예학과 4학년 차지연 학생이 작목반장으로 총 8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이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공설·용남시장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남원시는 19일 남원 장날을 맞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경식 남원시장과 공무원들, 자원봉사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장보기 행사는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목적으로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7일간 4개 전통시장(공설·용남·운봉·인월)에서 공무원 등 약 9,000여명이 저소득층 및 명절 필요품 등을 구입, 지역 상권의 침체와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해마다 이용하는 고객이 줄고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쇼핑 등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택배 무료 서비스(20kg이상, 2만원이상),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문화행



사,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 주거 취약계층 난방 환경 개선 봉사활동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난 18일 총학생회 학생들과 주거 취약계층의 난방 환경 개선 캠페인에 나섰다.

이는 지역사회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스타트업 등 20여 개 기관들이 함께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전주대학교 학생들은 집안에 방치돼 있는 폐기물 수거 및 탄소성유 난방 시공을 위한 집안 물품 이동과 청소 활동 등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을 함께한 전주대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나눔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어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혁신 한동승 센터장은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은 물론 대학의 사회적역할 수행과 ESG 공헌 사업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총장배 태권도대회 성료

제18회 전주비전대학교 총장배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6-17일 열린 이 대회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초·중·고 및 일반부·실버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특히 태권도 가족품과 일반인 가족품 등 가족품에 종목의 통해 가족간의 화합과 태권도 고유의 충, 효, 예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 성인들의 참여로 품새 활성화를 비롯해 실버를 대상으로 한 품새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엘리트 종목 역시 초등학생들의 참가로 엘리트 선수 저변 확대와 태권도 붐 조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는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도내 대회 중 가장 많은 참가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매년 2,0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여 이 후원금은 학생 장학금과 대회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